

碩士學位 請求論文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와
權力承繼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韓 致 益

1992年度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와 權力承繼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韓 致 益



韓致益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年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抄 錄

본 논문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 남아 있는 왕국, 부자세습에 의한 권력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자처해온 소련이 공산주의를 탈퇴하고 자본주의화 및 개방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도 개방의 문을 열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가 처해 있는 남과 북이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때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식대로 라는 주체사상을 만들어 주민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로 신격화 시킴과 동시에 북한 내·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려고 각종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이 왜 아들에게 승계를 해야만 하는가, 또한 승계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김일성이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있어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가능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물결과 개방의 압력등으로 북한 자체내의 경제 사정의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처해있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어느정도 해소 해야만 자체내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며 불평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해야만 보장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지금까지 현 지배자의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한 예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승계는 가능성은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세계의 흐름이 급속하게 흐르기 때문에 미지수이다.

目 次

| | |
|-----------------------------|----|
| I. 序 論 | 1 |
| 1. 研究의 目的 | 1 |
|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 2 |
| II. 共產圈의 政治的 承繼理論 | 4 |
| 1. 政治的 承繼의 意味 | 4 |
| 2. 政治的 承繼의 特徵 | 4 |
| 3. 權力承繼의 契機 | 6 |
| 4. 權力承繼의 過程 | 6 |
| III. 主體思想의 形成과 金日成主義化 | 8 |
| 1.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 8 |
| 2. 主體思想의 圖式과 正式化 | 8 |
| 3. 主體思想의 體系 | 12 |
| 4.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 13 |
| IV. 金正日體制 承繼過程 및 展望 | 18 |
| 1. 承繼體制의 背景 | 18 |
| 2. 權力承繼의 名分 | 20 |
| 3. 權力承繼의 過程 | 21 |
| 1) 金正日 의 意 義 構 築 | 21 |
| 2) 偶像化 操作課程 | 24 |
| 3) 偶像化 操作實態 | 25 |
| 4. 軍部 掌握 | 26 |
| 5. 金正日의 政治的 支持基盤 | 27 |
| 6. 金正日의 承繼體制의 問題點 | 27 |
| 7. 金正日의 承繼體制의 展望 | 33 |
| V. 結 論 | 36 |
| 參考文獻 | 38 |
| SUMMARY | 42 |

I. 序 論

1. 研究目的

21세기를 10년 남기고 대부분의 사회주의권은 변혁의 소용돌이에 처해있다.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자처해온 소련과 중국이 과감한 改革, 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 체제의 근간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再解析하는 한편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창출에 고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후 소련은 국내외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再建, 再編)을 바탕으로한 모든 분야에 혁신적 갱신사상을 정립하고 모든 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다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야기된 내부의 혼란은 소련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정권 탈취에 실패하였고 이로인해 일부 공화국이 연방에서 脫退, 그리고 공산당 解體 段階까지 왔다. 천안문 流血事態를 계기로 改革, 開放政策이 다소 후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의 집권후 과감한 정책전환이 시도되면서 '實踐은 眞理檢證의 唯一한 標準'이라는 명제하에 일종의 사상해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중인 유고 사태와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남·북한의 표본이 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권 일반의 변화 추세와는 완전 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순수성과 '主體革命偉業'의 고수에 더욱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것이 특징이며 이는 최근들어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사업 즉, 이데올로기적 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사업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통해 혁명적 수령관의 확립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¹⁾ 이는 북한정권의 최대 당면과제의 권력승계 작업과 불가분한 관계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은 각종

1) 정노관(1989), "북한의 사상교양 강화와 권력승계 문제와의 상관성", 「공산권연구」, 11월호, p.26.

회담을 통하여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김일성의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의 한 단계의 정책이라 볼 수 있겠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第6次 勞動黨 大會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표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暫定的으로나마 후계자 위치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목표설정에도 도움이 되고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시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내·외부의 반대 세력과 리더쉽 문제 그리고 정통성과 공산주의 정통 이데올로기에 위배등을 무릅쓰고 권력을 승계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면서도 계승을 할려는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공산권의 정치적 승계이론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화

셋째, 김일성의 김정일에게 권력승계 과정

마지막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이유와 권력승계 전망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김일성 父子 권력승계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통치권 이양과 같은 일반적인 교체과정이라기 보다는 主體思想, 革命傳統, 基本的인 政策의 틀을 물려받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김일성 통치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칙적인 권력승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는 없다. 특히, 북한과 같이 閉鎖된 국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란 매우 힘이 든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공산권을 연구하는 분야에 있는 機關資料(共産圈研究), 北韓資料, 學者들의 論文, 그외의 附隨的인 刊行物을 참고하

2) 제6차 당대회(80.10)시 김정일의 대내지위 및 서열은 당정치국 상무위원(4위) 당비서(2위), 군사위원(3위)이었고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2차 회의(83.4.5) 당정치국 상무위원(2위), 당비서(2위), 군사위원(2위)으로 후계자적 위치가 확보되었다.

였다.

本 論文의 구성은 第 5 章으로 나누었으며 第 2 章에는 공산권 국가들의 승계 이론을 분석, 북한과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 第 3 章에는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따른 신격화 과정과 김정일에게 승계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第 4 章에는 김일성에서 김정일에게 권력승계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共產圈의 政治的 承繼理論

1. 政治的 承繼의 意味

政治的 承繼(political succession)란 반드시 공산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정치적 승계가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정치 과정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세습적 전제정권이나 현지배자의 지명이 奏效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적합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³⁾

공산권에서의 권력의 이양 즉, 승계는 後嗣(heir)란 말이 풍기는 뉘앙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경쟁과 도전이 배제되고 복수주의와 다원주의가 용인될 수 없는 마치 밀폐된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이 양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정치적 승계란 交替되고 更新되는 過程(process)이라기 보다는 물려주고 물려받고 다시 되물려 주는 意圖的이고 作爲的인 過程(succession process)인 것이다.⁴⁾



2. 政治的 承繼의 特徵

정치권력의 승계 과정상 나타나는 특징으로서는 첫째로 승계가 이루어 지더라도 위기를 수반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다. 둘째로 파벌이 형성된다. 파벌은 독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요 정책에 관하여 自派의 견해를 발표하는등 정책대결의 명분도 된다. 셋째로 승계 후보자의 범위는 흔히 당의 정치국이나 비서실에서 선출되며 여자로서는 아직 권력의 정상에 오른자가 없다. 넷째로 후계자는 사전에 선정된다. 그

3) 임홍철(1983), “공산권의 정치적 승계 사례와 북한”, (북한), 10월호, p.154.

4) 허경구(1977), “북한의 체제적 변수가 권력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원, p.5

이유는 (1) 스탈린 처럼 은퇴하거나 사망후에도 자신의 개인적 명성을 소망하기 때문이며, (2) 毛澤東과 티토처럼 애국심이 주요 동기가 되어 승계 기간중 국가의 국제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과 승계위기를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지배자가 자신이 창건한 주요 업적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4) 소위 혁명정신이 결여된 자에 의하여 권력이 顛覆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⁵⁾

따라서 정치적 승계는 각국의 정치적 성격과 세부적인 정책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공산권 승계 사례를 분석한 러쉬(Myron rush)는 승계문제가 대두되는 계기를 지도자의 자연적인 사망과 내외적인 상황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인 계기로 보았고,⁶⁾ 로웬탈(R. Lowenthal)은 정치 승계를 단기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의 갈등적 측면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토피아의인 충동에 의한 혁명을 제도화하려는 [繼續革命]의 경향과 경제적 근대화의 요구에 의하여 고무된 혁명 과정의 枯渴現象인 [體制의 官僚制化]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⁸⁾ 분수(Valerie Bunce)는 승계란 단순히 통치자(governing officials)교체라기 보다는 정책의 환경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것이며 정권승계시 정당성의 결여에 대한 위기는 정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았다.⁹⁾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권력승계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않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이양은 항상 얼마간의 승계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베버(M. Weber)에 의하면 카리스마적인 지배는 소위 가리스마의 일상화 방식에 의한 선거, 지명, 세습등의 형태로 권력의 승계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5) 엄홍철(1983), 前掲書, pp.162-164.

6) 이철희(1974), "정권 승계이후 리더쉽 위기와 정책변화", 「북한」 9월호, p.73.

7) Alfred C.Meyer(1983), "K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IV No.3, pp.161-169.

8) Richard Lowenthal(1983), "The Post-Revolutionary Phase in China and Russi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IV No.3, pp.191-201.

9) Valerie Bunce(1981), *Do New Leaders Make a Difference? : Executive Succession and Public Polic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6.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승계 방법인 선거에 의한 합법적 지배형으로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¹⁰⁾ 따라서 라리스마의 권위는 지나치게 개인의 비범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안정적 지배형태는 못되며 지배자의 퇴거는 체제를 무서운 승계위기로 몰입시킬 蓋然性이 큰 것이다.

3. 權力承繼의 契機

공산주의 정권에 있어서 정권 승계의 계기는 정치 지도자의 사망이나 신체적 무력화에 의한 자연적인 원인과 정치적 압력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정치적 원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권력정치는 密閉된 場속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음모의 연속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자연사로 알려진 지도자의 죽음뒤에는 懷疑에 찬 눈초리가 뒤쫓는 경우가 흔히 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한 권력승계의 경우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대체로 반대 세력의 정치적 압력이 근원이 되지만 많은 경우는 지배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대외적인 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경우에 있어서는 지배자와 그의 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불만이 분출하게 되며 승계에 따른 위기 또한 보다 깊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게 된다.

자여적 승계의 지배자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가 크고 후계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며 승계의 계기가 급작스럽게 되면 위기는 그만큼 심각하게 된다.¹¹⁾ 越盟의 胡志明은 사마하기 전부터 당무와 정무에서 실제로 손을 떼고 실력자들에게 주요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승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4. 權力承繼의 過程

권력승계의 과정은 승계다툼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있

10) 안병영(1982), 「현대공산주의 연구」, 한길사, p.30.

11) 국토통일원(1987), 「북한의 권력 구조와 김정일 세습체제 연구」, pp.7-12.

다. 첫째는 制度的 다툼(limited contest)의 類型으로 권력이 질서있게 이양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擴大다툼(extended contest)의 類型으로서 지배자가 사회적 무질서와 권력에의 도전을 힘겹게 극복한 후 개인적 지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不確定 다툼(indecisive contest)의 類型으로서 지배자가 본질적 권력을 獲得 하였으나 그의 권위적 지위가 공고화되지 못하여 새로운 승계위기가 유발되는 경우이다.¹²⁾

승계위기를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극복하였지만 집단지도 체제는 잠정적, 과도기적 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배집단을 구성하는 강자중 1인이 실력자로 부상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가는 경우가 소련과 같은 나라들에서 있었다. 따라서 소련에서 있었던 세번의 권력승계 경우는 모두가 擴大다툼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련에서 세번의 擴大다툼의 경우는 ① 스탈린(黨書記長)이 시노예브(코민테른議長)와 카노예브(인민위 副議長)를 규합하여 당시 노조 중앙 위원장이었던 트로츠키가 레닌의 후계자가 되는것을 막고 그후 政敵을 숙청한 후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경우 ② 크누샤브가 트로이카 체제(말렌코프 몰로토프, 베리야)에서 베리야를 숙청하고 자신이 포함된 변형된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한 후 피의 숙청없이 스탈린의 전철을 밟은 경우, ③ 브레즈네프(黨 制 1書記)가 코시킨(수상) 포르고르니(最高會議 幹部議長)와의 트로이카 체제를 끝내고 1인 체제를 구축한 경우를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12) 안병영(1980), "공산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국제문제」, 7월호, p.20.

III. 主體思想의 形成과 金日成主義化

1.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黨宣傳煽動員大會’에서 ‘黨思想事業에서의 主體’를 주장¹³⁾ 즉, 1953년의 스탈린 사망과 한국전 휴전을 계기로 국내파, 소련파와의 당권 투쟁에서 김일성의 자기의 권력을 옹호 강화하려는 전략상의 요청에 따라 ‘主體’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소련에서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사회주의 진영 내부와 미·소 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거센 영향이 스탈린主義下의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김일성이 시도한 사상적 예방 조치가 ‘黨思想事業에서의 主體’문제를 제기하는 일이며 이것이 후에 스탈린주의를 변형화한 주체사상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스탈린 격하운동은 김일성에 의해 억압되었던 그의 반대파 즉, 연안파와 소련파로 하여금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한 반대파의 투쟁에서 스스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 확립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主體’의 확립이라는 사상적 명분을 자기에 도전하는 당의 반대파를 공격하는 파벌투쟁의 무기로 삼았다.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대파인 소련파와 연안파를 물리쳤다. 후에 주체사상으로 전개되었다.

2. 主體思想의 圖式과 正式化

주체를 내세워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상황변화와 대내적 권력투쟁에 대처하기 시작한 김일성은 이를 뿌리내리게 하기위해서 어떤 이론적 체계가 필요했고 이 체계는

13) 김일성(1960), “사상사업에서 교주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데 대하여” 「김일성 선집」, 제4권, pp.325-354.

대외적으로는 선전에, 대내적으로는 주민 감정에 모두 어필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圖式이다.

‘思想에서의 主體’는 인간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黨宣傳煽動일군들’ 앞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최초로 제기되어 1966년 10월 18일 김일성이 ‘黨中央 委員會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일군들’ 앞에서 연설할 때 거의 정립을 보았다.¹⁴⁾

1966년 10월 18일 연설때 사람들을 혁명화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부르조아사상을 제거하고 공산주의 사상의식을 높여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만들고 온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는것이 ‘思想에서의 主體’의 목표였다.

김일성은 ‘思想에서의 主體’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몇가지 방침을 택하였다. 그 가운데 첫째는 3대(思想, 技術, 文化) 혁명소조 조직이다.¹⁵⁾ 1973년 2월 김일성의 발위에 의해 당의 결정으로 탄생된 것으로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된 3대 혁명소조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동원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충성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두번째로 국가주석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0월-12월에 제정했다. 이법은 김일성을 중국식 국가주석의 자리로 격상하여 명실상부하게 최고권자, 절대자로서의 권위를 누리게 하였다.

그리고 1976년 4월에는 ‘유아보육 교양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를 ‘主體型的 革命的인 새인간’으로 교화하기 시작했다. 또 1978년 4월에는 주체형의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했는데 이법의 제 33 조에서 하루 8시간을 주체사상 학습에 할애하도록 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체사상의 학습을

14) 김일성(1968),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 한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조선노동당 출판사, 제4권, pp.404-441.

15) 3대 혁명 소조에 관해서는 양호민(1987), “3대혁명의 원류와 “양호민의, 「북한 사회의 재인식」, 도서출판 한울, pp.143-187.

통하여 김일성이 뜻 하는 주체형의 인간으로 교화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人間改造工場'이라고 말할 수 있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소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생존의 길을 찾기위해 '창조된' 것이며 이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상황변화와 동·서간의 긴장완화 무드에서 매우 유동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는 자신의 반대파인 최창익등의 연안파와 박창옥등의 소련파 그리고 박헌영등의 남로당파 잔당을 숙청하는 무기로 '政治에서의 自主'를 이용했다. 또한 '政治에서의 自主'는 대외관계의 자주주의 의미로서 대국주의적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 노선을 자체로 결정하고 관할하는데 있어서 독자성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것은 1966년 8월 12일자 노동신문의 사설 "自主性を 옹호하자"에서 였다.

김일성이 이처럼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여파의 공산국가들과의 대외관계에서 자주노선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내에서의 자기의 독재권력이 1961년 4차 당 대회에서 이미 확립되었고 세계 공산주의권 내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에서 였다. 그리고 그는 '政治에서의 自主' 원칙을 1970년 이후에는 비동맹 외교의 전개를 위한 무기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經濟에서의 自立'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政治的 自主'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에서 제창한 것이다. 이것은 1956년 12월 11일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처음 제기 되었다. 이때 북한은 소련 블록국가들로 부터 거액의 원조를 얻는데 실패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해 야 될 시점에 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그 혁명운동에서 국제적 원조를 얻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대중의 생활고에서 오는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진해온 毛澤東 방식의 자립경제의 정책을 모델로 채택하였다.

毛澤東 방식의 자립정책이란 국내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정책으로서 중국의 '社會主義 總 路線'과 '大躍進 運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毛澤東이 1935년 처음으로 부르짖는 '自力更生'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김일성도 毛澤東

으로부터 ‘自力更生’의 구호를 배워 그것을 1958년부터 시작한 천리마 운동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김일성이 중국의 자립정책을 모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의 자립정책이 북한의 긴급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실상 제시해 주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대·소 의존에서 탈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어떠한 외부의 침략가에도 대처하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1962년 1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¹⁶⁾ 여기서 그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몇년동안 지연 시키더라도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의 원칙과 더불어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 全人民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로 표명되는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하였다.

김일성이 이처럼 1962년에 국방력 강화를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 역량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소련으로 부터의 군사지원의 중단 1962년 10월 쿠바 위기때 소련이 보여준 投降主義的 태도, 중·소 국경 분쟁때 비사회주의 국가인 인도를 지원한 소련의 처사, 그리고 1961년 남한에 등장한 군사혁명 정부의 반공태세 강화에 대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1955년 주체의 제기로부터 1966년 대외적인 자주노선의 선포에 이르고 있어 이에 1967년부터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동격으로 격상해서 사용되면서 ‘唯一思想體制’라는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이에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는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함께 당 지도이념으로 공식화 했으며, 1972년 12월 제정된 ‘社會主義 憲法’에서도 ‘主體思想’이 북한의 지도적 지침임을 규정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의해 그의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완벽하게 확립하게 된 것이다.

16) 조선중앙연감(1963), pp.157-162.

3. 主體思想의 體系

김일성 주체사상을 ‘共産主義的 人間이 가져야 하는 科學的이고 革命的인 世界觀’이며 근로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 이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⁷⁾

주체사상은 뒤에서 人間中心 世界觀, 勞動人民大衆 集團主義, 首領 領導論의 세 가지로 종합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확대하였다. 이 세가지 원칙을 인민대중에게 교화시켜 김일성 1人 지배체제를 떠 받들게 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표현이 곧 주체사상인 것이다.

‘人間中心 世界觀’을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라고 밝히며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외부세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것. 다시 말하여 객관세계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했다.¹⁸⁾ 마치 부르조아 휴머니즘의 체취를 풍기는 듯한 말이다.

이처럼 인간중심 세계관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自主性과 創造性’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기에 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다시말해 개인의 확장인 집단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때 그 일원인 개인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의 확장으로서의 집단을 ‘勤勞人民大衆’으로 규정짓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중심 세계관을 계급 사상으로 확장하는 논리가 근로인민대중 집단주의인 것이다.¹⁹⁾

17) 김일성(1978),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 조선노동당출판사, p.20.

18) 김일성(1978), “일본정치이론 잡지 <세계>편집국장과의 한 담화” 「김일성저작 선집」 제7권, p.260.

19) 이상우(1985), “정치이론, 사회변화와 대남관계”,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증보판, 법문사, p.300.

주체사상에서 혁명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제약하는 사회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했고, 이것은 ‘勤勞人民大衆의 자극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며, 그 목적은 근로인민 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는 것이다.²⁰⁾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의 근본 원인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이 아니라 ‘勤勞人民大衆’의 혁명 의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의하면 ‘勤勞人民大衆’은 혁명의 주체이지만 스스로 정치적 자극을 얻지못해 혁명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勤勞階級の 卓越한 首領’이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당을 창건하고 그의 혁명적 영도를 실현함으로써 노동계급은 비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혁명계급’이 된다고 주장한다.²¹⁾

이러한 논리를 정리하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혁명의지는 인민대중의 이익의 무엇인지 밝혀주는 수령과 그의 지침을 실현하는 당에 의해서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혁명은 전당과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영도에 따라 투쟁해 나간다. 결국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출발했으나 나중에 가서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김일성이라는 만능의 수령 1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개하는 논리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귀결이 바로 ‘主體思想’의 核心이다. 여기 우리는 나치스식 전체주의적 ‘指導原理’를 ‘主體思想’에서 발견한다.

4. 主體思想의 金日成 主義化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승계체제 구축이 본격화 되면서 북한에서는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라는 변화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김일성

20) 황장엽(1979),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4월호, p.32.

21) 황장엽(1979), 上揭書, p.26.

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로청 제 6차 대회에서 처음 후계자 문제를 거론한 후 당에서의 김정일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기 시작해했고 1980년 10월 제 6차 대회에서 당서열 제 4 위로 부상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그는 1983년부터는 당서열 2위를 굳히면서 명실공시 당정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북한의 내외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산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승계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 자신의 사후 혹은 퇴진후 예상되는 김일성 격하운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의 사상과 권위를 계속 절대화 하여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승계체제의 구축은 김일성의 시대나 공언대로 순탄하지 못했다. 특히, 김정일의 카리스마의 혁명 업적이 없는 세대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정통성 결여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당 및 사회전반에 걸쳐 김일성에게 바쳐졌던 충성심을 김정일에게도 충실하게 전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 하나가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라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를 통한 김정일의 이데올로기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²²⁾ 무릇 어떤 공산당에서도 당의 최고권력자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 그 해석의 독점권을 가진다. 오늘의 북한에서는 김정일에게 당권의 승계가 확정됨으로써 '主體思想'의 유일 최고의 해석권은 그에게로 넘어간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은 대외적으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주의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 피압박 인민에게 투쟁목표와 방법을 표시하는 지도사상으로서 마르크스主義를 대신하는 사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²³⁾

북한의 선전책자에 의하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려는 생각을 가진것은 1970년 5월경 부터이며 공식으로 제기한 것은 1974년 2월 19일의 전국

22)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소상한 분석은 고성준(1988),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3) 탁진외(1984), 「김정일 지도자」, 제2부, 동방사, pp.13-14

당사상 사업부의 일군 강습회에서 ‘은 社會를 金日成主義化하기 위한 黨 思想 事業이 當面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 었다.²⁴⁾ 그후 1982년 3월에 ‘主體 思想을 金日成 主義化로 正式化하고 그 體制와 內容 原理 및 方法을 全面的으로 集大成’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그의 논문이었다.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그는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를 완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金日成主義’를 당조약이나 헌법에 공식 이데올로기로 명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金日成 主義’라는 용어를 노동신문 〈근로자〉 혹은 당이나 정부 고위층 연설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들로는 (1) 그들이 동맹국인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으로 부터의 비난과 냉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2) 김일성주의의 내용과 독창성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3) 김일성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는 모험의 전도가 불투명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 ‘金日成主義’라는 용어를 대내 국외에서 전시용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결국 앞으로 김정일 체제의 안정여부가 그 확대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김정일에 의하여 정식화되었다는 김일성주의는 사실 ‘金正日에 의하여 再解析된 金日成의 主體思想’으로 보아 더 타당하다. 김정일의 설명에 의하면 김일성주의는 ‘主體의 思想 革命理論 領導方法의 體制로서 主體思想에 의하여 밝혀진 革命과 建設에 關한 理論과 方法의 全일적 體系’이다. 김일성주의를 주체사상과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주체사상을 보다더 ‘體系化’시키고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표1참조)

김정일은 그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하여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革命的 首領論’ 더욱더 치열하게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²⁵⁾ 결국 ‘金日成主義化’는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고전적 마르크스 주의를 능가하는 위대한 사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주체사상의 절대화, 관념론화의 한 과정인 것이다. 또한 이 과

24) 탁진외(1984), 上揭書, p.15.

25) 로동신문, 1982년 4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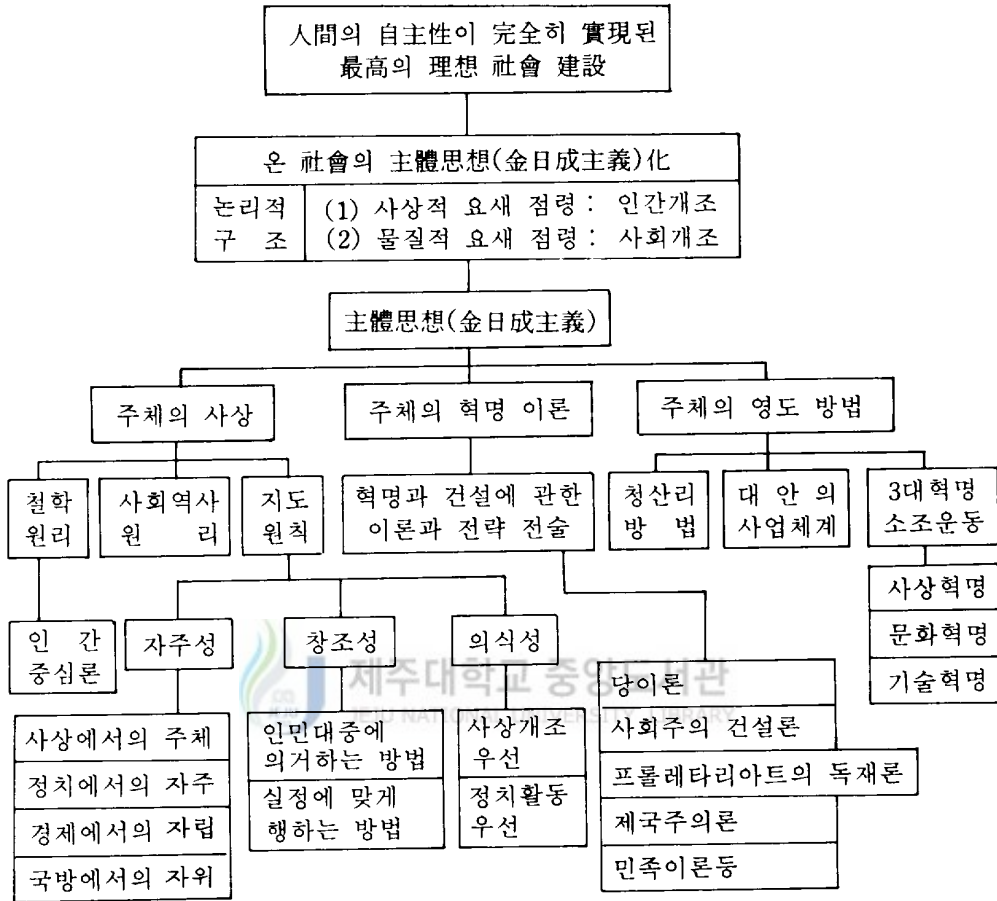
정은 김일성의 독재권력의 절대화, 신비화의 과정과 표리 관계에 있으며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정당성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김일성의 ‘主體思想’에서 최대의 문제는 그것이 김일성 개인 숭배의 목적에서 조선 공산주의의 역사에 관해 있는 사실들을 삭제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엄청난 역사의 변조 작업을 통해 독재권력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꾸며져 왔다는 점에 있다. 둘째는 그 안에는 정치적 주장만이 있을뿐, 체계적 철학, 과학, 역사, 이론을 담은 내용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김일성이 단편적으로 몇다미 한 그때 그때의 발언들을 당이론가들이 확대하고 보충한 선전적 해설관이 ‘主體思想’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김일성 자신은 단한권의 책은 물론 이론적 가치가 있는 논문 하나를 발표한 일이 없다. 어떻게 ‘永生不滅’의 사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인간 지성의 검증에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 ‘主體思想’을 지탱하고 있는 무한대의 독재권력이 언젠가 소멸되는 날 ‘主體思想’은 내외로 부터의 비판적 도전에 의하여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표 1) 주체思想(金日成主義)의 體系



IV. 金正日體制 承繼過程 및 展望

1. 承繼體制的 背景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가장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김일성이 계급원칙마저 무시하고 족벌독재와 이를 자기 장남이 계승케 하는 이유는 사후에 스탈린이나 毛澤東처럼 격하운동이 벌어지고 역사의 이단자로 지탄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自家의 날조된 혁명경력과 ‘경애하는 首領’의 ‘빛나는 事業成果’가 영구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할 후계자가 필요했고 그런 인물이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抗日武裝鬪爭 參加者’들을 권력기반의 핵심으로 삼고 김일성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그 투쟁에 참가하였다는 ‘革命同志’가 크게 믿을 것이 못되는 가변적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교리대로 이 중에서 후계자를 고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산독재는 공산당을 세력기반으로 펼쳐지고 공산당의 조직원칙은 북한 노동당 규약 제2장에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중앙 집권제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당원에게 권력이 독점되고 이 권력을 휘둘러 당수의 직위 안보를 위해 또는 그 직위를 노려 권력투쟁 숙청이 되풀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속성이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²⁶⁾

북한 권력 투쟁의 특징은 빈도가 잦고 무자비하였다는 이외에 핵심계층 내부에서 진행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정파상으로 반대파에 속하는 경쟁세력들을 거의 모두 스탈린 격하운동의 초기인 1956년 8월에 소위 8월 종파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50년대말까지는 일단락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김일성과 내에서도 권력 투쟁으로써 전반기에는 문학예술 분야 종사자들을 정리하였고 후반기에는 박금철, 이효순 등 ‘甲山派’라고도 불리우는 당료파와 김창봉, 허봉학 등 ‘軍事派’ 일부 등 김

26) 「북한총람」, (1983), 북한연구소, p.1945.

일성체제의 핵심요원들이 제거됨으로서 명실공히 1인 독재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공산 독재체제의 기반과 지주인 당과 군부의 요직에 앉힐 정도의 심복부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자기 사후를 보장해 주리라고 믿어지는 심복 부하가 있었다면 그에게 일단 권력을 승계시켰다가 김정일에게 물려 주도록 획책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씨족관념이 남달리 강하였기 때문만은 아닌것 같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어서 어느 독재자나 자기 혈육에게 권력이양을 바라기 마련이나 김일성이 유독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은 家系를 숭상하고 가계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성의 장점을 악용한 탓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個人崇拜→獨裁者 神格化→家系の 神聖化→族閥政治→權力的 승계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관측에 일리가 있다.²⁷⁾ 이런 과정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김일성사상의 공산주의적 기반이 취약했고 봉건주의와 족벌주의 경향이 농후함을 노정시킨다. 이와같은 배경에 김정일 개인의 인적사항이 후계자가 될 자격이 미비로 인해 후계자로 내정되어 확정되기까지는 7년이라 기간이 소요되었고 김정일 체제가 사실상의 출범을 위해서는 북한 노동당 6차 대회(1980.10)이후 북한에서 펼쳐진 숭한 저항운동의 소용돌이를 거쳐 1983년 「9.9節」까지의 약 3년이 걸리는 도합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共產治下라고 해서 자가 父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그것이 '黨的原則'이니 '階級的 原則'이니 하는 판단기준에서 혈연관계를 초월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경우는 그와같은 인정을 받을만한 후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오랜 준비 기간과 수많은 숙청을 위해 3次 革命小組라는 북한식 紅衛兵까지 동원되었고 앞으로 계속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것이다. 김정일이 내놓을 만한 후계자로서의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김일성의 강한 후광이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것이 체제상의 특징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김정일체제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 김일성의 후광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27) 「북한」, (1983), 10월호, p.48.

진로를 밝혀가면서 ‘대를 이은 忠誠’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점에 감안되어 1970년대 부터 기반 축성작업이 진행되었으나 80년대 6 차당 대회에서 공식화된 후 본격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이 추진되어 왔다.

2. 權力世襲의 名分

김일성 부자가 세습체제의 이론적 주장은 1982년 2월 발행한 ‘指導者論’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 區 分 | 內 容 |
|-----------------|--|
| 革 命 繼 承 論 | ○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과업은 대를이어 계승해 나아가야 한다. ○ “金日成없는 金日成主義”를 유지해야 한다. ※김일성 격하운동 배제 |
| 世 代 交 替 論 | ○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 ○ 후계자는 영도자로서 품모를 갖춘 인물이면서 동시에 새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
| 血 統 繼 承 論 | ○ 수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 수령의 혈통을 계승하는 자라야 인민 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다. |
| 歷 史 的 準 備 段 階 論 | ○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사상과 이론 영도예술을 배우고 이어받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
| 金 日 成 化 身 論 | ○ 김정일은 수령의 화신이다. |

28) 국토통일원(1984), “김일성부자 세습체제의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p.33

김정일은 1982년 10월 자신이 직접 집필했다는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논문을 통해 혁명 승계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타 ‘首領論’, ‘首領의 地位와 役割은 무엇인가?’, ‘首領의 後繼者는 어떤 者라야 하며 後繼者의 役割은 무엇인가?’, ‘首領 後繼者 問題의 빛나는 解決’ 등의 각종 논문에서도 김정일부자 승계체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3. 權力 承繼 過程

1) 金正日 이미지 構築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에서 1960년대 末 소위 ‘革命家系’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²⁹⁾ 김일성은 1950년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 체계를 확고히 확립한 이후 점차 1人 독재체제를 강화해 가는데 관심을 가졌다.

김일성家系의 이상화는 선조들의 ‘偉대한 革命傳統’을 세웠으며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偉대한 首領’ 김일성의 등장해 왔음을 강조해 왔다. ‘革命家系’의 이상화는 김일성의 혁명과업이 한 세대에서만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 ‘金日成家系’에 의해 대를 이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계승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연결되고 있다. ‘金日成家系’에 의한 권력계승 작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북한의 권력 핵심이 김일성과 김영주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점차 김영주가 권력구조의 핵심에서 사라지면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등장하였다.

김정일이 북한 권력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9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비공개 전원회의에서 그가 당조직 및 선전 선동 담당비서의 자리를 차지 한데서 부터였다.³⁰⁾ 또한 같은 해에 김정일은 그와같은 공식적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별도로 조직 운영된 ‘3대革命 小組運動’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29) 정진위(1983), “북한세습 후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국제문제」 154호, pp.86-87.

30) 국토통일원(1984), 前掲書, p.48.

알려진 바로는 1974년 부터 북한은 김정일 ‘黨中央’으로 호칭하면서 김일성 권력체제의 세습적 계승 작업을 진행시켰다. 지난 1980년대 10월에 열린 제 6 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정치국서열 제 4 위 비서국 제 2 위 당 군사위원회 제 3 위 등과 같은 공식적 지위를 점유하였으며 사실상 김일성 다음의 제 2 인자로 그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1981년에는 그에게 ‘아버지’ ‘영도자’ 등의 호칭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작업은 매우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가 1973년 공식적으로 당조직 및 선전 선동 담당비서의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79년까지의 그의 이름의 일체 당공식 매체에서 표기되지 않고 다만 ‘黨中央’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계획의 은밀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은 다각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우선 그의 등장이 이념적 정당성을 발견하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한다는 이유로서 주로 ‘리더쉽 理論’ 권력을 승계한다는 이유로서 주로 ‘리더쉽 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노동자의 혁명적 근거는 한 위대한 지도자로 부터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의 권위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둘째, 위대한 지도자의 혁명목표의 달성은 오랜 시간을 요하며 따라서 그러한 작업은 세대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승 문제는 이러한 혁명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계승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후계자는 새로운 시대에서 뽑혀져야 한다. 그러한 후계자는 지도자의 이상과 이론을 익히면서 계승 준비를 주의깊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계자는 미리 선택되어야 한다.

넷째,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그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갖어야 한다.

다섯째, 후계자는 그 자신이 최고 수준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³¹⁾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후계자 선거 기준들은 본질적으로 ‘칼맑스’ 이론에 어긋난다.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운동이나, 鄧小平 체제에 있어서의 탈 毛澤東 경향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김일성과 그의 지원 세력들은 후계자 선택의 논리를 제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공산체제에서도 현직 지도자의 아들이 그의 후계자로 지정되는 전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의 김정일 등장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습적 권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들어 김정일의 우상화 현상이 일층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1975년에 김정일 생일인 12월 16일 공휴일로 제정한 경우도 김정일의 우상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1980년 제 6차 당 대회 이후 그에 대한 상징조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1년 4월에 들어 북한 노동신문은 ‘金日成 主席께서 開拓하신 偉業을 繼承해 나가시는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日 閣下’라느니 ‘偉대한 首領 金日成 主席과 親愛하는 指導者 金正日 閣下の 만수무강을 빈다.’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명실공히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공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다.

1982년 2월 15일에는 ‘中央 人民委員會 政令’을 발표하여 ‘金正日 生日 40들에 즈음하여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 英雄 稱號를 授與함과 금별 메달 및 國旗勳章 1 級을 授與’ 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권위 조작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³²⁾ 북한에서 ‘共和國 英雄 稱號’와 ‘國旗勳章’과 같은 최고 훈장이 수여된 것은 1953년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두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指導者의 思

31) Kwon-Sang park(1982), "North Korea under Kim Chong-il", Journal of North East Asian Studies, Vol. 1, No.2, pp.61-62.

32)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에 관해서는 손인섭(1982),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 갈 등상", 「북한」, 5월호.

想과 理論'을 충실히 익히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일을 '金日成이 이룩한 主體의 血肉을 이어 나갈 수 있는 確固한 擔保'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1982년 3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이른바 '主體思想에 關한 全地域討論會'에서 김정일이 집필했다는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지나치게 찬양한데서 잘 나타났다. 이 논문에 대해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노작'이며 '主體思想을 全面的으로 集大成化하고 體系化한 不滅의 古典的 文獻'이라고 찬사를 덧붙였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의 이와 같이 김정일의 논문에 찬사를 덧붙이는 이유는

첫째, 김정일을 사상가로 널리 알리고 둘째,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가지며 셋째,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계승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데 있었다고 풀이될 수 있다.

2) 偶像化 操作過程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1973년 9월 전당대회에서 최용건, 김일등의 제창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때부터 김정일에 대한 실권강화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³³⁾ 이상화의 제 1 단계는 72년부터 76년까지의 기간으로 권력승계 구축과 권위 조작에 주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73년 2월에 5만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3대혁명 소조를 조직하여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기관에 파견하고 이들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기관을 구축하였으며 한편으로는 73년 5월에 정치보위부를 조직하고 反金 세력을 제거하는 사업을 병행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김정일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를 '黨中央'이니 '鄉土의 햇불'로 호칭하면서 그의 권위를 조작하는데 주력했다.

제 2 단계는 77년부터 78년까지의 자체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는 '黨中央' 등 호칭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의 초상화를 전면 제거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정치적인 3대혁명 소조의 횡포에 대한 당·정 간부들과 주민의 반발심을 무마하고 김일성 절대적 권위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시 김정일은 '植物人間'이라는 소문도 퍼진바 있다.

제 3 단계는 1979년부터 82년까지의 기간으로서 김정일의 치적을 날조하여 전면적

33) 박재후(1986), 「시사자료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pp.87-97

으로 부각시키면서 그의 후계자 위치를 내외에 선포한 시기였다. 1980년 10월에 있는 당 6차 대회에서 김일성과 함께 당 중앙위원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비서, 군사위원을 겸직하면서 부터 제 2 인자로 부상되었으며 82년 4월에는 김일성 우상화 선전의 상징물인 소위 주체 사상탑과 개선문등 구조물 건설의 지도자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으며 이기간에는 호칭을 변하여 ‘黨中央’ 親愛하는 指導者’ 외에 ‘나라의 작은별’ ‘革命思想의 完全한 化身’ ‘恩惠로운 해발’ ‘未來의 太陽’ 심지어는 ‘閣下’ 稱號와 함께 ‘人民의 慈愛로운 어버이’ ‘世界革命의 指導者’ 등 종래에 김일성에게만 붙였던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의 업적과 권위를 날조 선전하는데 주력했다.³⁴⁾

제 4 단계는 8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김정일을 통치권자로 부각하여 김일성과 동일 차원에서 우상화 하고 있다.³⁵⁾ 83년 2월 16일에 김정일을 ‘主體血肉의 唯一後繼者’로 선포했으며 중공을 비공식 방문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중공의 세습체제 공인을 부각시켰다. 83년 7월 4일에는 ‘김정일 주의’를 10월 17일에는 黨의 ‘首位’나 ‘金正日 時代’를 공언하였다.

3) 偶像化 操作實態

우상화 선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정치, 경제, 문예,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날조하여 그의 영도자적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한편 80년대에는 그의 ‘思想治論의 指導者像’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일성과 동일 차원의 우상화 작태를 벌이고 있다.³⁶⁾ 우상화 놀음을 보면 그 형식과 각본 내용 등의 얼마 전까지 김일성을 두고 해왔던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김일성이 10살도 채 못된 나이에 벌써 일본 헌병들을 혼내 주었다 든가, 술방울로 총알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날조극을 연출했던 것과 똑같은 공식으로 김정일도 10대에 벌써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공적을 세웠는가 하면 ‘가는곳 마다 일꾼(黨·政幹部)들의 눈을 확트게하는 말씀과 기적을 설새없이 해냈다’느니 9살때 조국전쟁(6·25)이 일어

34) 「북한총람」(1983), 북한연구소, pp.78-79. 최근에는 김정일을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우상화시키고 있다. : 「내외통신」, 제55호, 1986.5.28자.

35) 박재규(1985), 「북한의 김정일 승계체제 : 그 문제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23-26.

36) 박재후(1986), 前掲書, pp.90-91.

났는데 그는 어린 나인인데도 청년 근로자들을 조직 지도하여 유격투쟁을 하면서 무찌르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의 기질을 발휘했다. 대학시절에는 군사훈련에 참가하여 사격에서 백발백중하였다는 등 오히려 김일성보다도 훨씬 어린나이에 전투지휘 경험을 쌓은것 처럼 조작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의 백두산 탄생설을 조작하기 위해 ‘白頭山’ 하늘에 장군별이 솟아 왜놈들이 망하고 나라가 광복되었는데 향토의 별(金正日 指稱)이 찬란하니 미제가 쫓겨나고 나라가 통일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등 1940년 백두산 창공에는 장군별의 유난히 밝았는데 맨앞 장군별이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 별이고 그옆에 자애로운 빛을 뿌리는 여장군 별이 항일의 영웅 김정숙 女史(金正日 生母)의 별이고 그 가운데서 영롱한 빛을 반짝이는 별이 애기 장군별(金正日 指稱)이었는데 오늘 주체의 향토성으로 높이 솟아올라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한번 결단을 내리면 하늘이 내려 앉아도 뚫고 나가며 바다도 갈라내고 세기를 앞당겨 나가는 김정일동지, 단 한번의 낭패도 모르고 한번 결심하면 한번의 승리를 한번 결심하면 한번의 승리를 어김없이 이룩하는 비범한 …… 지력, 담력, 탁월한 영군술,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을 역전시키는 기개로하여 불패하며 탁월한 지력으로 더없이 세련된 노동당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가 이끄는 우리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그 어떤 사나운 비바람도 무서울 것 없고 불을 뿜을 화산이 가로 놓인다 해도 두려울 것 없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내일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따라 영원히 백전백승해 나갈 것이다.

4. 軍部 掌握

김일성의 조정에 의거 북한 군부의 대부인 인문무력부장 오진우를 주축으로 총참모장 및 주요 요직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확보한 다음 연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 군부대 내에 김정일 체제의 ‘親衛隊’ ‘후비대’인 3대혁명소조원 3명씩을 파견하여 장병들의 사상동향 감시 및 군내부 김정일 지지기반 구축을 조직적이고도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73회 생일인 85년 4월을 기하여

소위 ‘祖國解放 40돌과 黨創建 40돌에 즈음’ 인민군의 발전에 공헌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次首로 진급시키고 군내부에 김정일 지지세력에 대한 보상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김정일의 군부장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특히 원로급 빨치산 출신 간부들중 김정일 후계자체제를 옹호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승진시켜 보답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반대 세력에게는 제거형식을 취하였다. 김정일의 군부장악이 상당기간 난관이 있었으나 과감히 정지작업을 통하여 김정일에 의한 군내 핵심간부 양성사업이 손조롭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물론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실질적 군부 지휘를 과시할 단계까지 왔다.³⁷⁾

5. 金正日 政治的 支持基盤

김정일의 정치적 권력기반의 핵심세력은 북한의 권력서열상 최상위 그룹을 점유하고 있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지들, 그리고 당 비서국을 위시하여 유학 또는 해외여행을 통하여 잘 훈련된 노동당 조직의 50대 중반의 당관료 출신들이 있다. 또한 김일성 후계체제의 확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군부세력과 만경대 혁명 학원 출신, 만경대 혁명 학원은 1947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는데 당초의 목적은 혁명가의 유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직업 혁명가를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으로 탈 바꿈되었다.³⁸⁾

마지막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력 후비대인 사로청과 3대 혁명소조가 김정일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6. 金正日 承繼 體制의 問題點

1) 權力構造內의 抵抗 및 反對

김정일은 후계자로 옹립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권력내부와 주변

37) 특집 : 1985년도 북한의 주요동향(군사) : 김정일 군부장악 표변화.

38) 「노동신문」, 1986년 4월 24일자, 이두의 대장 논설 : 「노동신문」, 1985년 4월 24일자.

세력의 반발 문제이다.³⁹⁾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70대의 원로급에서 김정일의 옹호 세력인 40대로 권력이 이양될 경우 중간 단계인 50, 60대의 중견 간부급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속체제 구축과정에서 실각 또는 소외된 세력과 김정일이 주도하는 3대 혁명소조등 신진세력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당, 정, 군 및 주민들이 반체제 소요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내재되고 있다.⁴⁰⁾

2)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違背

공산주의 정통 이론에서는 장자 계승이나 족벌주의는 봉건주의적, 부르조아적이며 개인 주의적 반동주의라고 간주한다. 북한에서는 맑스-레닌主義, 스탈린 主義와 毛澤東 사상을 회피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마치 공산주의 정통 이데올로기인양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주체라는 용어를 신문, 잡지, 책자에 인쇄하여본 일이 없다고 한다.⁴¹⁾ 따라서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공산주의 정통이론인 '사적 유물론'에도 크게 위배되어 북한의 후계실현에 있어서 기본적 난점이 아닐수 없다.⁴²⁾

3) 政策의 選擇問題

김일성의 그의 장남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근대화와 혁명의 지속이라는 일견 상충적인 국가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다.⁴³⁾ 과거 북한에서도 산업화를 향한 변혁이 있었고 이러한 혁명 과정을 통하여 행정, 관리 기술적 엘리트들의 핵심계층으로 성장하면서 당 간부들의 교육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중·소등 공산국가의 일반적인 세력도 다원주의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나가고 있

39) 유석열(1985), 「남북한 관계론」, 정음사, p.45.

40) 1984년 5월경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는 중 당·군 중견간부들이 김정일 반대하는 내부소란이 있었다. : 「주간첩보」, 제23호('85. 6. 7), 15면 1985년 7월 불발 구데타설 : 「조선일보」, 1986. 6. 3, 4면.

41) 정진위(1983), 前掲書, p.88.

42) 양명오(1983), 「북한 그리고 중공과 소련」, 학문사, 1983, p.182.

43) Chong-Sik Lee(1982),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11", Asian Survey, Vol. XXII, No.5, p.435.

다. 따라서 북한만이 혁명위주의 紅政策을 고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기능적 분산과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면서 까지 근대화를 위주로한 前政策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⁴⁾ 따라서 정책의 선택문제는 후계체제가 안고있는 중차대한 딜레마인 것이다.

4) 리더쉽과 個性問題

김정일의 리더쉽 측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첫째, 국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명성과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하며 둘째, 김일성처럼 權威的 支配(authoritarian ruler)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만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셋째, 부동의 공공적 지지가 부족하여 김일성 사후 동일하게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 스러우며 넷째, 김일성주의 처럼 종교적 교리와 버금가는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이데올로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김정일은 강한 의지의 혁명 정신과 장기간의 후계자로서의 從第練習期間을 거치면서 3대혁명 소조들과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을 위시한 테크노크라트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당·정내에 부식시키고 당의 수문장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균형력이 없는 부분은 3대 혁명소조 운동과 당 군사위원회의 성원이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⁴⁶⁾

김정일의 개성에 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으나 그의 성장 배경과 행태로 보아 극단적인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어렸을때 부터 계모 슬하에서 자라난 데서 오는 년장자에 대한 증오심과 불신감, 최고 권력자의 장남이라는 자만심과 우월성, 전쟁과 가난을 모르고 성미가 급하며 저돌적이고 독선적인 과격한 성격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았

44) 박재규(1985), 前掲書, p.35, 김정일은 속도전, 3대혁명 불은기 쟁취운동, 청년돌격대 운동을 과감한 대내정책과 긴장된 동원태세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강경정책과 통제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김태서, "김일성 후계 문제와 김정일의 세력기반 구축과정", 북한연구 학술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국토통일원, pp. 18~19.

45) Sukk-Ryul Yu(1985),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pp.6-10.

46) Young whan Kihl(1984),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 Regimes in Contest Boulder : Westviw Pess, pp.119-127.

고 최고 엘리트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머리가 명석하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예민하고 합리적이며 모든것을 알고자 하는 정력과 대담성이 있을 수 있다.⁴⁷⁾ 1978년 피납되었다가 북한을 탈출한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1986년 4월 14일 미국에서 기자회견 중 김정일은 머리가 좋으나 잔인한 사람이며 자택에 영사실을 갖고 있고 2만여개의 영화필름을 갖고 있다.⁴⁸⁾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과 어떤 행위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⁹⁾

美 CCIA가 신상옥, 최은희 부부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김정일의 행태 및 성격은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적출되었다.⁵⁰⁾

김정일(이하 '金'이라함)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주목과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자 랑꾼임.

金은 어느누구도 외부로부터 일시적이거나 주목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

金은 사람과 사물에 대해 흑백 및 선악 개념으로만 보고 있음(맞은 人事措置)

金은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무례나 비판으로 생각되면 화를 내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누구도 그에게 반대하지 않음.

金의 기분상태는 자주 정상에서 화난상태로 또다시 정상으로 바뀜.

金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한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착하지 않음.

金은 사물을 균형있게 보는 능력이 없어 자기위주로만 보며 양심도 없음.

金은 동구권을 포함한 다른나라 실정에 무지함(中共人을 더 가까이함)

金은 조직적인 정보수집을 하지않고 여러 조언자들의 보고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

金은 이상적인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음

金은 창조적 인물은 아니지만 예술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어 작품의 장·단점을 비

47) 국토통일원(1986), [북한실태와 남북한 관계], p.10.

48) 동아일보, 1986. 5. 15, 3면.

49) 조선일보, 1986. 5. 16, 1면.

50) 국가안전기획부, 「美 CIA의 신상옥, 최은희 심문내용(보고서)」, 1986. 5. 28, 김정일의 부정적인 면은 「서울신문」가 「경향신문」, 1986. 11. 12일자와 「동아일보」, 1986. 88. 7일자, 4면.

관하거나 식별할 능력이 있음.

金은 아들을 낳은 정부가 있다는 소문이 있음.

金은 항상 피곤해 보이며 그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음.

5) 北韓住民의 不平不滿 擴大

경제적 침체와 지속적인 노력동원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점점 확대시키고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회의가 대두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극성과 무사안일, 태업행위와, 열차폭파 사례등으로 표면화 된 것이다.⁵¹⁾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을 不純階層, 動謠階層, 核心階層으로 구분한다. 不純階層은 지주자본가, 종교인, 친일파, 월남인, 정치범, 반당 종파분자 등이며 動謠階層은 자본가 일제 반대가족 등이며, 核心階層은 6.25당시 부농, 노동자, 농민, 품팔이, 항일투사, 6.25 유가족 등으로 세분하로 있다.⁵²⁾ 또한 12개의 特別獨裁隊家 區域에 약 15만명의 정치 사상범을 감금시키고 있으며⁵³⁾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반대 하다가 숙청당한 자는 1993년에 약 1,096명이 된다고 한다.⁵⁴⁾ 따라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김일성의 세습체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⁵⁾ 북한을 탈출한 신상옥은 평양 외곽 제6형무소(국가보위부 소속)에 2,000여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자신도 이들중 60명과 함께 4년동안 수감되었으며 그리고 북한의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정부와 당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으며 김일성을 비판하다가 재판도 없이 20년이상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51) 김무(1983),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튼튼한가", 「북한」, 10월호, p.59.

52) 국가안전기획부(1987), 「김만철 일가 신문첩보」, p.135.

53) 「내외통신」, 제440호 (1985. 6. 21)

54) 국제사면 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198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세습체제에 반대하다가 숙청당한 숫자가 1,096명이 된다 : 「통일일보」 1983. 6. 4일자

55) 북한은 12월 25일자 로동신문 사실에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배겨날 수 없고 침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건전한 반혁명 요소에 대한 잔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正統性的 缺如

정통성의 결여는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있어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 방법이 아닌 권력승계는 항상 정통성의 위기가 야기되었고 강력한 통치자의 비호아래 세력기반을 구축한 경우에도 그 통치자가 사망하면 곧 도전을 받았다. 그 실례로서 중공의 毛澤東의 妻 강칭이 毛澤東의 사후에 옥고를 치루었고 김일성이 혁명투사로서 계속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정권 수립후 2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감수한 것 도이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⁵⁶⁾

7) 對中蘇 및 南北韓 關係問題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하여 중·소가 외교적 제스처(lip Service)로서 묵시적으로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를 비롯한 동구권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집권시 북한은 중·소 양국으로 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대중·소 양갈외교를 효과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는 많은 딜렘마가 조성될 것이다.⁵⁷⁾ 북한의 대중 관계에 있어서 딜렘마란 중공의 실용주의 경제정책 모택동 비판 개방주의 대외정책등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북한의 향후 수용 및 적응태도가 될 것이며 대소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소련에 대한 역사적 불신 및 감정문제와 소련의 군사 경제원조의 현실적 필요성과의 조화문제 등 대중·소 관계에 있어서 김정일은 하나의 조선정책과 무력화 혁명 통일을 견지하면서 계속 주한 미군의 철수를 획책할 것이다.

중·소도 북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중·소중 어느 일방에 북한의 경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는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들도 두개의 한국이 '平和的 共存'을 위하여 쌍방 직접적인 대

56) 염홍철(1983), 前掲書, p.165.

57) 정진위(1983), '북방삼각관계', pp.213-214.

화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국제적인 정세를 어떻게 분석 및 평가하고 대처하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의 김정일 시대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8) 其他問題(先例, 카리스마, 金日成의 健康)

공산권의 정치권력에 있어서 부자세습에 선례는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처럼 항일이나 6.25와 같은 무력투쟁 경력이 전무하고 당경력도 혁명 1세대에 비하면 그 경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혁명 1세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個人偶像化 시키는데는 큰 애로가 있는 것이다.⁵⁹⁾

소련의 2대 독재자 스탈린도 世界對戰을 통하여 영웅화 되었고 전후 공산권의 확대로 그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공의 毛澤東도 大長征으로 중공대륙을 통일시켰다. 김일성의 건강문제도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성패에 큰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김일성은 60년대 이후부터 각종 지병(후두종암, 고혈압, 심장병, 간장병)등으로 소련 루마니아 의사들을 수차례 초청하여 치료를 받았다.

7. 金正日 承繼體제의 展望



숨가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20년동안 진행중인 김일성의 권력승계 계획도 돌연 변화할 수 있다. 여러 가능성중 다음의 4가지 경우, 이는 (1) 단기실패, (2) 단기성공 (3) 중기성공 (4) 장기성공인 경우이다.⁶⁰⁾

58) Kwon-Sang Park(1982), "North Korea under Kim Chong-il", Journal of North East Asian Studirs, Vol. I. No.2, p.76.

59) 정석홍(1980), "북한 6차 당대회와 남북한 관계: 특히 김정일 체제의 특성과 향방을 중심으로," 「국제문제」, 12월호, p.105.

60) 고병철(1991), "북한의 정권이양: 문제와 전망" 제1회 국제학술회의, 민족통일 연구원, pp.12-14.

첫번째 김일성의 권력승계 계획이 그의 죽음후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한다. 군사 혁명이나 민중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 정치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본다. 아무튼 20년대에 걸쳐 권력승계 계획을 합병화하고 제도화 해온 준비작업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두번째는 권력승계 계획의 단기성공이다. 이는 1년까지는 잘되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중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승계가 성공한다고 보는 이유는 오랜기간 승계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당화예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1년후 까지 지속 할지는 의심스럽다. 정당화의 주요변수는 후계자의 수행능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김정일이 얼마나 확실한 혜택을 북한 인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김정일이 현재까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단편적이거나 가능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세번째는 김일성이 고안한 승계체제가 1년을 넘어 아마도 4-5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후 혁명이나 변혁을 일으켜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의 두 경우와 같이 왕조계승은 조만간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점은 시간, 예를들면 얼마나 빨리 실패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승계계획이 즉시 아니면 1년 이내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승계에 따르는 정당화와 제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어느정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김정일이 적어도 6년에서 10년정도 북한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지위에 머물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때 그의 권력기반은 너무 견고하여 도전은 불가능하다. 그의 권력은 널리 정당화 되고 제도화 되어 있을뿐 폐쇄적인 정치제도에 따르는 더없는 무력감 역시 현상유지를 지속케 할 것이다.

위의 4가지중 가장 가능성이 짙은 것을 두번째와 세번째이다. 김일성의 승계계획은 단기나 중기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하자면 이 계획은 중

기나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권력승계 계획이 아무리 시대착오적이고 격세유전적이라 하더라도 그 성패 여부는 궁극적으로 권력기반의 관리에 있다.

합법화와 제도화 작업이 완결 되었다는 것은 승계계획의 고안자가 비록 사망한다 할 지라도 승계계획만은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행중이거나 수개월 혹은 수년내에 다가올 후속 조치들은 승계계획이 여러해 동안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생활의 실상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누군가의 능력을 확신 보장 하기에는 너무 들떠있고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승계시기는 매우 중요하나 아무도 아직 그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죽음전에 주석직이나 총비서직중 하나를 혹은 모두를 이양할 것인가? 만일 그가 끝까지 권력에 집착한다면 얼마동안이나 지속할 것인가? 1년, 2년, 5년 아니면 더 오래? 주변 환경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때 북한에 어떤종류의 변화가 닥쳐 올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91년 8월 소련에서 실패한 쿠데타와 민주혁명과 비슷한 무엇인가 중국에서도 일어날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환경을 실제적 그리고 심리적 양면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그 독특한 정치체제 즉, 주체 지향적 또는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유지능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다.⁶¹⁾ LIBRARY

일·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크게 진전된 한반도 내의 관계개선등에 의해 불붙은 북한의 급격한 개방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김정일 정권의 인민 장악능력을 강화해 주고 김정일에 대한 정당성을 향상 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61) 북한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이라는 주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이 행한 다음의 연설문에 나타나 있다.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자.

V. 結 論(要約 및 展望)

북한의 권력승계는 김일성 자신의 세운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케하는 이유 이외도 김일성의 神格化된 사상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자기의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 주려는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다. 북한 정치이념은 抗日革命 전통과 맑스-레닌主義를 변칙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서 조직된 혁명전통 위에 프로레타리아 독재사상이 이식되어 1인독재체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지만 人間主體化의 원천을 수령에 귀착시킴으로써 김정일 승계체제를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 김일성은 개인독재에서 신격화로 우상화 시킴으로써 주체사상만이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구호아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개인 신격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고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이어 김정일에게 연장시켜 자연스러운 권력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승계의 시기는 국내외적인 압력이나 요인보다 김일성 자신의 변수이다. 김일성의 사망전에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나? 아니면 사망후 자연스럽게 김정일의 권력을 이양하느냐? 현 상황으로 보아 김정일의 후계위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승계하리라 예측한다. 김정일의 권력의 권력 공고화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등 대내적 상황은 권력승계의 궁극적 요인이지만 '90년 전후하여 급변하고 있는 외부정세와 그에 따른 그들의 불가피한 대외정책 노선의 전환등 대외적 상황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권력계승 구도를 설계할 당시와는 상황과 조건이 크게 달라진 사황에서 앞으로도 권력승계 논리의 핵심인 혁명과정의 영속선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 얼마나 지속성 있게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권력승계는 북한 정치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유지와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 이후의 승계가 세대교체와 함께 실용주의적 개방화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김일성을 神格化하여 상징적 존재로 추켜세우는 한편 실질적인 권력행사는 김정일과

그의 지지세력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체제는 외교정책에 목표를 둔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엔가입 후에도 남북회담에서는 종전의 주장은 계속할 것이며 평화공존을 받아 들이면서 물자교류, 인적교류를 일부 하면서 70년대의 한국을 모델로 한 생산력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 군비 감축을 제안할 것이다. 국제 관계로는 미 수교국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나 핵무기 개발 압력을 문제삼아 유엔으로 부터의 인권에 대한 문제와 소련식 민주주의에 의한 개방의 압력으로 부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일부 받아 벌려고 시도할 것이나 이는 대외적인 일부 개방이지 대내적인 개방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타개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김정일체제의 정통성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單行本〉

- 고성준(1988), 「주체사상의 형성과 체계화」, 국토통일원.
 ◇ (1989),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능」, 국토통일원.
공산권문제연구소(1982), 「김일성과 김정일」.
김창문(1981),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 대남전략 전망」,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김갑철, 고성준(1988),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문우사.
김영학(1989), 「주체사상분석Ⅱ」, 공안문제연구소.
류완식(1974), 「김일성 주체사상의 전체주의성」, 국토통일원.
류완식(1977), 「김일성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박재규(1985), 「북한의 김정일 승계체제 : 그 문제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대숙(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청계연구소.
신정현(1983), 「북한 김정일 체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양호민(1979), 「북한 주체사상의 이론체제 연구」, 국토통일원.
정인형(1990), 「북한의 정치 : 주체사상과 정치사회화 주체사상과 그 기능」, 북한인식 I, 을유문화사.
최 명(1990), 「북한개론 :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 분석」, 북한인식 I 을유문화사.
국토통일원(1976), 「김일성 후계자 문제 종합분석」.
국토통일원(1977), 「김일성 주체사상 형성과정」.
국토통일원(1984), 「김일성 부자세습 체제 정책방향」.
국토통일원(1987), 「김일성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
국토통일원(1988), 「주체사상 무엇이 문제인가」.

〈論 文〉

- 강인덕(1983), “북한의 간행물을 통해 본 김정일 사업지도의 특성”, 공산권연구.
- 고병철(1991), “북한의 정치이양 : 문제와 전망”, 민족통일 연구원(제1회 국제 학술회의)
- 고성준(1988),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갑철(1986), “김정일 후계체제의 통합방식과 정책방향 전망”, 정책연구 제18호, 서울국제문제조사연구소.
- 김태서(1980), “김일성 후계문제와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 북한연구 학술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국토통일원.
- 양호민(1981),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 공산권 연구.
- 이우정(1986), “노동당 제5차 당대회 이후의 북한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안병영(1980), “공산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국제문제.
- 정노관(1984), “김정일 권력승계와 주체사상과의 상관관계”, 정책연구.
- 정석홍(1980), “북한 6차 당대회와 남북한 관계 : 특히 김정일 체제의 특성과 향방을 중심으로”, 국제문제.
- 최완규(1977), “엘리트 구조를 통해 본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경남대학교 논문집.
- 한헌준(1984), “북한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책방향 연구”, 국토통일원.
- 허경구(1977), “북한의 체제적 변수가 권력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 중공과의 비교”, 국토통일원.

〈其 他〉

국가안전 기획부(1986), 미CIA의 신상옥, 최은희 신문내용(보고서), 시사자료.
정노관(1990),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와 권력승계 문제와의 상관성”, 공산권연구 국
동문제 연구소.

2. 北韓資料

김일성 선집(1963), 제1권, 평양, 조선 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선집(1964), 제2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정당, 평양.
김일성 저작선집(1960), 제4권, 조선 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선집(1972), 제5권, 평양 노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선집(1978), 제7권, 평양 노동당 출판사.
김정일(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출판사.
조선중앙연감(1949).
조선통사(하)(1958), 평양.
김종명(1953), 조선 신민주주의 혁명가, 동경, 동방사.
탁진 외(1984), 김정일 지도자, 제2권, 동경, 동방사.
황장엽(1979),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노동자」, 4월호.

3. 西洋文獻

〈單行本〉

- Bunce, Veleric(1981), *Do New Leaders Make a Difference ? :
Executive Succession and public policy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hl, Young whan(1984),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 Regimes in Contest*, westviiw press.
- Rush, Myron(1974),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Lthaca*, Cornell Univrsity.

〈論 文〉

- Kang, In-duk(1982), "Kim chong-II's Cuidance Activities as Mirrored in the Recent North Korea Press", *Jounal of North East Asian Studies*,
- Lee, Chong-Sik(1982),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I", *Asian Survey*, Vol. X X II. No.5.
- Lowenthal, Richard(1983), "The Post-Revolutionary Phase in China and Russi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 VI, No.3.
- Meyer, Alfred G(1983), "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 VI, No.3.
- park, kwon-Sang(1982), North Korea under Kim chong-II", *Journal of North East Asian Sutides*, Vol. I , No.2.
- Yu, Suk-Ryul(1985),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2and German-Korean Conference, Seoul.
- Pike, Douglas(1986),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Vietnam," in Robort A,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at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SUMMARY>

A Study on the Juche Idea, “Kimilsungsim” and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Han chi-i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future prospect of Kim Chong-il's succession to the position of Kim Il-sung of North Korea and suggesting a direction needed for setting goals of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pattern of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transmit the highest state power from Kim Il-sung to Kim Chong-il not only by imposing one-man rule, but also idolizing both of them.

In North Korea, Kim Il-sung has already been deified, and Kim Chong-il is being identified with his father in a move to succeed to the premiership through the mobilization of all kinds of decisive means.

However, there are Several puzzling questions about his succession to largely because of deep-seated grievances of the people, dysfunctional phenomena in the ideology, an arising disadvantageous situation for Kim Chong-il and uncertain symptoms resulting from the unstable basis of hereditary power.

In spite of those Weakness, Kim Chong-il is provisionally empowered in almost all sectors.

It is no doubt likely that Kim Chong-il will succeed his father as President of North Korea if Kim Il-sung can retain political power for 3-5 years more.

If so, Kim Chong-il will be likely to idolize his father as deity, which are may be in a stronger position to carry out his own policies effectively, design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his regime in bo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making every possible effort to solidify his power.

